

지역 매 아리



부안군의회 정례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14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등 12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12일간의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정례회였던 이번 회기에서는 4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군 의회 차원에서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역지 주장 전체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이한수 의장은 "2018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과 전통 시장을 이용해 농민과 상인이 웃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마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부안축협 조합원 '한마음'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은 최근 부안군 스포츠파크에서 2018 고창부안축협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자산 3,000억의 규모의 고창부안축협은 축산물 유통사업, 축산미생물 제조공급, 축산컨설팅 등 고창군과 부안군의 축산업 발전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나눔축산운동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새만금조사료단지조성사업, 각종 축산재해지원사업 등 지역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축산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약 2,000여명 조합원과 객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경품과 풍성한 먹거리로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었으며, 고창부안축협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잘사는 부안' 팔 걸었다

군, 내년 신규시책 보고회 농축산인 소득지원 등 발굴

부안군이 잘사는 부안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4일 권익현 군수 주재로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체 예산 및 2020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자율과 책임 속에서 각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민선 7기 공약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는 군정을 추진하려고 각 실 과소 팀별로 발굴한 시책을 직접 보고받았다.

이번에 발굴된 시책은 농림어업축산인 소득지원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및 소상공인 육성사업, 소득과 연계된 관광사업, 주민복지 향상, 인구 늘리기, 청소년 지원사업, 2023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민선 7기 중점 투자 분야에서 총 178건이 발굴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발굴된 다양한 시책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더욱이 2030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부안군 중장기 미



부안군은 지난 14일 권익현 군수 주재로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자체 예산 및 2020년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래발전계획을 수립해 인구 늘리기,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안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장기전략과 이를 달성하려는 추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19년은 민선 7기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 되는 해로써 이번에 발굴된 신규 시책들이 새로운 부안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굴된 시책

이 보고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정부의 국정과제 투자방향, 중앙부처 역점시책,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잘 빠르게 파악해 오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정읍아산병원, 24시간 운영·휴일지킴이약국 53개소 지정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22일~26일)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 약국과 협력하여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에서 수립하여 실시하는 '2018년 추석 연휴 비상진료대책'에는 정읍시 보건기관 42개소는 물론 응급의료기관인 아산병원 등 106개 의료기관과, 약국 53개소를 포함한 201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정읍아산병원은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기관 42개소와 의료기관 106개소는 일자별로 근무일을 지정하여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구입을 위한 휴일지킴이약국 53개소를 지정·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을 설치·운영해 시민들에게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여부를 지도점검 하는 등 비상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안내는 정읍시보건소(☎539-6137~8), 보건복지콜센터 129, 119급상황 관리센터, 정읍시청 홈페이지 이용 실시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11개소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즐거운 명절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정읍시립요양병원(원장 문성근)과 공동주관으로 지난 14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조성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8년에 국가에서 치매관리법으로 지정된 날이다.

행사는 미술공예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시상식과 기념사, 치매극복 퍼

포먼스 등의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어 식후 행사로는 어린이 공연과 치매예방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사에서 유진섭 정읍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는 노인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과제이다"며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소외되기 쉬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없이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스포츠타운 조성' 의견 수렴

고창군, 수월·월암마을 주민과 설명회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3일 고창읍 월암리 월암마을회관에서 수월·월암마을 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주민설명회는 사업추진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 기본계획(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생활체육장, 생활야구장 주변에 총사업비 149억원을 들여 축구장 1면, 생활체육시설 전용구장,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체육(어린이)공원 등 약 7

만8,000㎡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 1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확보된 토지매입비로 보상을 완료한 구간부터 2019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스포츠타운 준공 및 운영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고창군이 더욱 탄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어 동·하계 전지훈련장소 및 국내·외 대회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군민 건강증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황토현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지난 14일 열렸다.

황토현어울림센터, 문화체험의 장으로 '재탄생'

'황토현어울림센터' (운영위원장 김호인, 이하 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지난 14일 현지에서 있었다.

황토현어울림센터는 기존의 황토현수련원을 리모델링하고 필요시설을 신축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 및 농촌마을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준공식에는 유진섭 시장,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 정읍시의회 고경운 부의장·경제산업위원의 이복형 위원장을 비롯한 정읍지역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어울림센터 건립은 황토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민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1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확보하여 2014년부터 올해까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주민역량 강화 등 세 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했다.

어울림센터는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12월 착공하여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강당(447㎡)과 식당(215㎡), 야외화장실, 샤워장(82㎡)을 리모델링했고, 체육동(지상2층, 598㎡)·단체생활관(144㎡)을 신축했다. 체육동은 1층 교육장과 2층에 80여명이 수용 가능한 펜션형 숙박실(7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의 힘으로 자생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손꼽히는 어울림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 | 375ml 2ea/13%

TEL : 063-594-8900
www.gangsanwine.com